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설교자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 108)

주님은 산 같아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만 가지 은혜를 (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0:34-43

“참 좋으신 주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찬 393)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다음 주일(1/3)은 신년감사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 후 예산안 결의와 장로 선출을 위한 정기공동의 회가 있습니다.
4. 2020년 12월 31일(목) 오후 11시 30분에 새해맞이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축복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차유미 전도사, YG이상-양명철 목사)
5. 2021년 큐티책 1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나 담당자(박순정)에게 신청해주세요. (1년-\$54, 6개월-\$27)
6.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7.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인구에 회자할 한 해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내년에는 금년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Covid-19으로 전세계가 혼돈과 경악 속에서 지냈던 2020년은 누구의 표현대로 전세계가 도둑 맞은 한 해 같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생각나지 않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일 년을 이렇게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일년의 마지막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실천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은 생각해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실천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 목회일정상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개인의 삶으로 볼 때 올 해보다 더 힘든 한 해를 맞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음했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일이든, 전세계적 일이든, 믿는 자들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할 때도 불안해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안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공포와 분노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속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시 40:2)”**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436,786